

佛心 잡기 나선 정치권 ... “민생·화합·소통” 한목소리

〈불심〉

尹,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참석
“국민의 행복 더 키우겠다”
‘입원’ 이재명 대표 SNS 통해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인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이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는 등 불심 잡기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며 말했다.

또 “나와 타인의 마음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와 화합이 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며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불교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

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불교계는 크고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며 “환지분처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사리 환지분처는 영부인에게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해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각국 외교 대사 등도 함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다른 생각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시키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되새긴다”며 “이 가치를 등불 삼아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처계신 법당 안에 계시지 않았다. 길 위에서 태어나 빈민에 빠진 중생들과 함께 호흡 하셨다”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두를 일깨우셨다”고 적었다.

또 “이 시대 정치의 책임도 다르지 않다. 하나하나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가 담겨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찬금같이 여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삼귀의례’ 하면서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라인야후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매각 빠질 것”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고서에 네이버의 관련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4일 통화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 이뤄졌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 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인사 사전조율 질문 7초 침묵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어느 검사장 와도 원칙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인과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한 뒤 7초 가량 침묵하며 고뇌에 찬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총장은 ‘용산과의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인사 시점과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 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내 달 동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 시점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전날 법무부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이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됐

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됐다.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인사였다.

이 총장은 지난 주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좀 더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수사 등을 놓고 용산과 갈등을 빚어온 이 총장을 ‘패싱’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